

21 세기 글로벌 선교의 도전과 이슈

문상철

필자는 선교 연구원으로서의 31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글로벌 선교의 변화, 도전,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필요를 느낀다. 그 세 영역이란 선교지, 선교 인력, 선교 전략이다. 이 범주에 근거하여 필자는 21 세기 글로벌 선교의 변화, 도전, 이슈에 대한 필자의 관점과 관찰한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지금 선교지는 두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둘은 이슬람의 팽창과 세속화로 인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의 약화다. 선교 인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목도하는데, 그것은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 선교운동과 선교적 교회 (the missional church) 운동이다. 선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된다. 첫째,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 혁신의 이슈. 둘째, 협력, 협업, 파트너십의 이슈. 셋째, 총체적 선교와 복음전도를 우선으로 한 선교 사이의 균형의 이슈. 넷째, 선교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이슈 등이 대두된다.

I. 선교지에서의 도전들

1. 이슬람의 팽창

2017 년에 발표된 UN 의 세계 인구 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7 년 중반에 76 억명 가까이 되었다. 2010 년 무슬림 인구는 1,599,700,000 명이어서 세계 인구의 23.2%에 해당되었다. 퓨 연구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세계 종교의 미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050 년까지 기독교인 (31.1%, 29.2 억)과 무슬림 (29.7%, 27.6 억) 인구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을 전망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5, 6, 7).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은 한 여인 당 평균 자녀 수가 3.1 명이어서 종교인구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치인 2.1 명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한 여인 당 자녀 수가 2.7 명이어서 두 번째다. 힌두교도의 평균 출산율 2.4 명은 세계 평균인 2.5 명과 비슷하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0). 2010 년에서 2050 년까지의 축적된 변화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유입	유출	순 증감
무종교	97,080,000	35,590,000	+61,490,000
무슬림	12,620,000	9,400,000	+3,220,000
힌두교도	260,000	250,000	+10,000

불교도	3,370,000	6,210,000	-2,850,000
기독교도	40,060,000	106,110,000	-66,050,000

다가오는 수십 년 간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4 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겠지만, 1 억 600 만 명이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대부분이 무종교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서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320 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1, 12).

국제적인 이주는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종교집단들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 비율이 2010 년 5.9%에서 2050 년 10.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 변화를 촉진하는 출산율과 나이 등과 더불어 이주를 고려한 것이다.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2050 년 유럽의 무슬림 인구 비율은 2% 정도가 더 낮은 8.4%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3).

북미에서는 2050 년의 무슬림 인구 비율은 2.4%로 전망된다.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비율은 1% 정도 낮아서 1.4%가 될 것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2).

대체적으로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빠른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2010 년 세계 인구의 12%에서 2050 년 20%에 달할 전망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5).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0 년 세계 인구의 5%에서 2050 년 6%에 이를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세계 무슬림 인구는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5).

그런가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0 년 세계 인구의 59%였으나 2050 년에는 5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구 전망은 불교와 중국 전통종교 등과 같이 이 지역에 집중된 종교들의 더딘 증가와 아시아의 무종교 인구의 느린 증가세에도 반영될 것이다. 인도의 거대한 무슬림 인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에서는 계속해서 힌두교 인구가 다수가 되겠지만, 2050 년에는 인도의 무슬림 인구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국가별 무슬림 인구를 이룰 전망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6).

21 세기 중엽까지 미국은 유대교 신자보다 무슬림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무슬림들이 인구의 2.1%를 차지하여 유대교도의 비율 1.4%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7).

유럽은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향후 1 억 명 정도 줄어서, 5 억 5,300 만 명에서 4 억 5,400 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 되겠지만,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 에서 2/3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2050 년까지 유럽인의 1/4 정도 (23%)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슬림들은 이 지역 인구의 10% 정도까지 될 전망이다, 2010 년 그 비율은 5.9%였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7).

전반적으로, 2050 년 무슬림들은 51 개국에서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2010 년보다 두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마케도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 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도 상당히 큰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050 년 기준 미국과 브라질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5, 18).

21 세기에 무슬림 인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에 사역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지혜는 극단 가운데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성숙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상황화 (non-contextualization)와 급진적 상황화 (radical contextualization)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한다. 폴 히버트 (Paul Hiebert)의 “비판적 상황화 (critical contextualization)”의 개념은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히버트 1997 [1994], 113-118). 급진적 상황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과, 상황화를 하지 않아서 외래적인 복음을 전할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비판적인 상황화 관점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그 위에 있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무슬림 상황에서 비판적 상황화의 접근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는 지역민들과 같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동일시보다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Z-세대 (제타 바이트의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에게 상황적으로 적합하게 접근할 것인가? 젊은 무슬림 세대는 글로벌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상황화는 단지 의사소통의 이슈가 아니라, 삶의 양식의 문제이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문화적 및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상황화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양식들 (styles)을 상황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세속화와 낮은 수용성

세속화는 사람들이 종교적 전통을 떠나 무신론이나 무종교적 규범과 가치를 좇는 것을 말한다. 세속주의는 여러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의 단순한 의미는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현세적 경향 (this-worldly orientation)을 일컫기도 한다.

2010 년 센서스와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11 억 명 정도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및 특정 종교와 결부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2050 년까지 비종교적인 인구는 12 억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Pew 2015, 8). 2050 년에 이르면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 최대의 종교적 집단은 무종교 인구가 될 전망이다. 많은 나라에서 종교 인구의 상당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다.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되었다. 2015 년의 국가 센서스에 의하면 무종교 인구가 다수가 되었다. 한국인의 56.1%가 특정 종교에 연루되지 않았다. 2005 년에는 무종교 인구의 비율은 47.1%였다. 10 년만에 그 비율이 9% 늘어난 것이다. 무종교 인구의 비율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다. 20 대에서는 64.9%인데, 이것은 60 대의 57.7%, 70 대의 58.2%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조선일보 2016. 12. 20 일자).

개신교는 한국 최대의 종교인데,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하며, 10 년 동안 1.5% 성장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율 (7.9%)을 합치면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6%에 달한다 (조선일보 2016. 12. 20 일자).

에스토니아에서는 다수가 무종교 인구 (54.1%)이며, 라트비아에서는 63.7%가 특정 종교에 연루되지 않고 있다 (CIA Factbook).

많은 나라의 젊은 세대 중에서 세속주의의 확산과 영향은 심각하다. 현세적인 경향, 물질주의, 소비주의의 침투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두드러진다.

우리는 세속주의의 세계관을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계관의 변화는 진리 (truth encounter), 능력 (power encounter), 경험 (empirical encounter)의 대결을 필요로 한다 (히버트 1997 [1994], 262-266). 복음은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화의 인지적 (cognitive dimension), 정서적 (affective dimension), 의지적/평가적 차원 (volitional/evaluative dimension)을 깊이 이해하면서 세속주의에 대항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삶의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양식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 선교적 삶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과 정신이다.

젊은 세대들은 세속적인 꿈과 욕망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알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은 삶과 행복의 역설 (paradox)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덧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배우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실현된 영속적인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공담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세속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어떤 질문들이 답해지지 않은 채 의문으로 남아 있는가? 그들이 일로 인해 너무 바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맞추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과 SNS 대화를 사로잡고 있는 시급한 필요 (felt needs)에 대비되는 진정한 필요 (real needs)는 무엇인가?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 궁극적인 질문들 (ultimate questions)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주 예수의 약속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빛

가운데 다룰 수 있다. 사람들은 많은 것에 현혹되고 유혹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관성은 우리 세계관의 온전함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다.

II. 선교 세력의 변화

3.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 선교 운동

20 세기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 인해 여러 피선교국이 선교사 파송 국가로 극적으로 변모하였다. 한국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서구인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의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서구 출신보다 더 많다. 이 새로운 선교 세력이 추가됨으로써 글로벌 선교 운동은 놀랍게 전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희망과 장점과 함께 이슈와 얽려되는 점들이 함께 있다.

다수세계 선교의 희망은 약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는 본성에 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상처받은 치유자를 통해 전해진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선교는 과거의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부담을 극복하게 도울 것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화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북반구 (the Global North)의 나라로 간주된다. 동시에 문화적 및 종교적 전통에 있어서는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의 한 나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문화적 전통과 과거 경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과 선교지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은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해왔다. 이 장점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취약 계층의 문화와 정신을 공유하면서 사역함에 따라 단일문화적인 배경 출신이라는 취약점을 상쇄하였다.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을 경험적으로 배운 것은 교회 개척자로서 자신 있고 유능하게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영신학의 물질주의적인 경향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한국 선교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 선교 운동의 가장 긍정적인 강점은 학습에 대한 강한 열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교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학습은 물론 조직적인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학습자의 좋은 모범을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민하고 지속적인 학습의 측면은 한국 선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특징짓는 것이 되어 왔다.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서구 선교의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 특히 북미 선교를 모델로 하여 발전한 측면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선교는 가난하고 약한 자로서 하는 선교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 면이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배운 자로서 선교하는 장점은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다.

한국 선교는 다수세계 선교의 전형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없고, 서구 모델과 다수세계 모델의 중간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중간에 위치한 모습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현대 선교 운동이 성취한 것 중의 한 가지는 믿음 선교 (faith missions) 단체들의 조직이다. 구조는 전략의 중요한 표현이다. 윌리엄 캐리의 파송 이전에도 조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믿음 선교 조직의 확립으로 인해서 선교사 자원자들을 보내려는 운동을 제대로 조직화하고 전략화 하는 것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선교의 초기 발전기에는 국제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파송받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로서는 유력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의 다수인 88.1%는 자생적인 (indigenous) 한국 선교단체 소속이다. 이것은 교파와 초교파 배경을 가진 많은 자생적인 선교단체들의 발전과 함께 가능해진 것이다. 그 행정과 리더십이 완전히 최적화되지는 않았지만, 파송 구조를 확립하는데 견고한 기초가 놓아졌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과 인도의 선교 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파송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중국 선교운동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교회의 열정적인 노력과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버마 선교 운동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조직화 해왔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선교지로 알려졌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기지가 된 여러 나라에서 상황화된 파송 구조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 훈련은 지난 30 년간 세계 선교계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Commission)는 그 네트워크와 태스크포스를 통해 선교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 새로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사 파송국가에서만 대두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의 새로운 특징들은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많은 신흥 선교사 파송국가에서는 상황화된 파송전 훈련 프로그램들 (pre-field training programs)을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선교회들과 선교사들은 이태웅 박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선교훈련원 (GMTC)의 사역의 혜택을 받았다. 이 박사는 영국과 미국의 선교훈련원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GMTC 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참고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 기반을 두면서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선교 지도자들과 실천가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안다. 분별력이 없이 열정만 가득 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무질서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젊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사역으로의 역할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선교사 파송 국가와 선교사 수용 국가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교의 복잡한 현실은 선교사들 편에서 적절히 준비할 과정을 거쳐야 함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들의 커리큘럼은 표준화될 수 없다. 그것은 각 문화적 및 교회적 상황에서 상황화되어야 한다. 김종명 선교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각 파송 국가의 여러 조건과 필요들을 고려해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김종명 2014). 우리는 또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전문화된 훈련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체 중에서 일부라도 전문화된 강좌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공식 (formal education), 비형식 (nonformal education), 비공식 (informal education) 교육의 측면들은 각 나라에서 조화롭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파송전 훈련은 높은 교육 수준과 학습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른 측면보다 공식 교육의 측면을 더 많이 반영한 경향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비형식 교육이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상황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케어에 대한 경험적 연구 (empirical research)를 통해서 필자는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 국가들에서보다 신흥 선교사 파송 국가들에서 멤버케어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면한 이슈들도 달랐다.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기케어 (self care)를 등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 케어 (professional care)에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들 중 다수는 일주일 이상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위기를 겪고 심리학적 및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선교사 경험도 있고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케어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난 30 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선교계는 멤버케어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마조리 포일 (Majorie Foyle), 데이빗 폴락 (David Pollock), 로라 메이 가드너 (Laura Mae Gardner), 로이스 다즈 (Lois Dodds), 켈리와 미셸 오도넬 (Kelly and Michele O'Donnell), 카렌 카 (Karen Carr), 해리 호프만 (Harry Hoffmann)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한 것에 힘입어 이제 한국에는 여러 멤버케어 단체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선교사들의 전형이 소위 영웅적인 선교사들의 영웅담 (hagiography)에 의해 왜곡되어 선교사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기대를 방해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것이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것보다 더 높게 여겨졌다. 그런 연고로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신흥 선교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멤버케어 이슈는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또 다른 한 이슈라고 본다. 한 극단은 선교사를 영적인 거인으로 보는 비현실적인 관점이다. 다른 극단은 무책임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선교사들의 방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부담스런 사명으로 부름 받은 보통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 자신, 동료 선교사, 파송자,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해 적절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젠가 필자는 선교사로서 헌신한 결과로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해 잘 알았다면 선교에 헌신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다.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와 고통을 치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선교 연구에 헌신했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알고 했더라면, 일을 좀 줄이더라도 자신과 가족과 동역자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더 여유를 갖고 묵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을 것이다.

4. 선교적 교회 운동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주요한 입장 중의 한 가지는 북미가 선교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그곳에서의 목회 사역은 선교사적 혹은 선교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Guder 1998, 2).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북미의 도시들은 점점 더 다문화적인 도시들이 되었다. 이것은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추세는 문화 안의 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촉진된 것이기도 한데, 반드시 다른 종족집단의 이주에 의해서 촉진된 것만은 아니다. 한 문화 안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화적 특징들은 기성 세대와는 상당히 다르다.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국에서 점점 더 확대되는 문화적 다양성은 목회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선교학 (domestic missiology)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내 선교학은 아직까지 해외 선교의 이론들을 목회 사역에 적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은 본국에서 목회자들이 선교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밝은 면은 그 논의에 있어서 교회론과 선교학을 통합하려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사적 본성에 근거해서 교회의 선교적 본성을 조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 중심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성에 대해 더 묵상하면서 해외의 선교사들과 본국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 국가들에서의 교회의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파송 교회들이 국내적인 이슈와 도전이 많아서 이전보다 해외 선교에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또한 최근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전보다 더 내부적이고 국내적인 과제와 도전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진 파송교회들의 갱신으로 인해 선교적 노력이 향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진정한 힘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부터 비롯되며, 다수의 피상적인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의 교회 개척자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종류의 교회들을 꿈꾸며 사역하는가?’이다. 많은 상황에서 이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한가?’이다. 많은 상황에서 교회 개척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지만, 선교적 교회를 개척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 이미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선교사들은 선교적 교회들을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은 선교지에서의 또 다른 도전이다. 선교사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론의 현재 이론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지만, 기존의 교회들을 갱신하는 시도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현실적인 사역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적 교회 대화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공히 선교사들은 선교적 교회의 본성과 특징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상황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교적 교회의 비전은 북미 외의 다른 지역 상황에서도 널리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상화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따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점들은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과 운동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은 이 논의가 해외 선교, 특히 개척 선교 (frontier missions)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근본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가들이 채택한 *미시오 데이* (missio Dei) 개념으로 인한 것이다. 이 개념에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이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관점은 지역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고려하면서 지역 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을 잡는 것이 많은 경우에 성숙을 추구하는 길로 보인다.

III. 선교 전략의 이슈들

5. 새로운 미디어로 인한 혁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연례 회의의 주제였다. 이 포럼의 설립자 겸 실행회장인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비교하면서 이 개념을 소개했다. 가장 최근의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성취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진보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컴퓨터 공학과 기술,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들의 발전과 융합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다 (Schwab 2016, 6-7, 17-18).

세계경제포럼 (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는 15개 국가, 9개 산업영역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기초해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술적 실업 (technological unemployment)의 이슈를 제기한다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57-58; 브리놀프슨, 맥아피 2016, 149-150).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직업들마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그러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통적인 선교적 역할이 얼마나 지속될 지, 선교사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해진다.

4 차 산업혁명은 기독교 선교에 점점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인데, 선교사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변화에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적합한 정보를 얻고 잘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례 없는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 사역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 역사는 사도 바울 이후 풍부한 혁신의 전통을 갖고 있다. 바울은 도로와 항만과 같은 로마 제국의 하드웨어를 혁신적으로 사용했다.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들은 선교 사역에 인쇄술, 번역, 항공, 방송, 사회과학적 연구 등의 첨단 기술들을 활용했다. 우리의 전통에는 혁신의 DNA가 있다 (문상철 2017, 154-155).

IT 혁명인 3 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이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었다. 이 토대 위에서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많은 기술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통합되고 있다. 인터넷, SNS,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등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않고도 여러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첨단 통신 기술들의 개입으로 손실 없는 개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도, 제자도, 교육 사역은 일정한 수준의 개인적 의사소통을 수반한다. 4 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한 사람이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만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강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한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시건 대학교 (The University of Michigan)의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은 20-30 년 전보다 40%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Schwab 2016, 100-101).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종교를 화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심각한 이슈를 놓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만나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삶의 현실이 바뀌어 가는 가운데 상황화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전통적인 전도, 제자도, 교육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Z-세대가 선호하는 매체는 X-세대나 Y-세대와는 달라 보인다. 우리에게서 편안한 지대 (comfort zone)를 벗어나서 다른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성육신적 접근법은 자신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비우고 사역적인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혁신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프론티어와 그것에 기반을 둔 삶의 양식으로 들어가고, 그 세계에서 선교적 역할을 하는데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선교연구원 (kriM)의 2017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한 에스토니아의 혁신 사례, 2017년 4월 4-5일 맨체스터 중앙 컨벤션 컴플렉스에서 열린 인더스트리 4.0 서밋과 엑스포 (the Summit and Expo of Industry 4.0), 그리고 기술 및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인터뷰 한 것에 근거하여 기독교 선교의 혁신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하 문상철 2017, 147-149).

첫째, 선교 지도자들은 사역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혁신지향적인 비전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교 지도자들은 그 비전과 철학에 따라 구성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그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화된 시스템들, 특히 정보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서 수평적 및 수직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도와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새로운 매체로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역적 혁신은 성육신적 삶과 사역의 원리를 재해석하면서 사랑의 실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포괄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행정적인 업무를 전문화해서 사역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역적 혁신의 초점은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핵심인 *리미널리티* (liminality)와 *코뮤니타스* (communitas)가 강화된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는데 둘 필요가 있다 (문상철 2017, 151).

혁신에 있어서 이러한 일반은총의 지식을 적용할 때 사역과 조직적인 상황에 따라 이슈가 달라질 수 있다. 단체들은 그 발전단계들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역팀들은 그들의 대상집단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협력, 협업, 파트너십

선교에 있어서 협력, 협업,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교회와 교회는 함께 일하여야 하며, 교회와 선교회도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단체가 다른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도 전략적인 일이기도 하다.

선교단체들의 협력, 협업, 파트너십의 전반적인 수준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깊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비즈니스 리더에게 있어서는 다른 리더와 함께 협력, 협업,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죽고사는 문제이다. 선교단체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 및 단체들과 함께 일해야 할 당위성에 있어서 더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준비가 덜 된 느낌을 받는다.

조직적 충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대의명분을 섬기는 한 좋은 것이다. 문제는 한 선교 사역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경쟁심이 작용하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 경쟁심은 농경사회에까지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그러한 경쟁심은 고도로 연결된 정보사회에서는 함께 하는 정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선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하며,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들에 충성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단체들의 협력, 협업, 파트너십을 방해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선교단체 대표들이 내부적인 일에 사로잡혀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그 회원들과 관련된 행정적인 책임들이 과중하여 지도자들이 파트너십 개발과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 단체도 내성적으로 되는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관찰은 한국 선교 지도자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외부적인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선교 지도자를 선발하고 훈련하고 평가할 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그러한 리더십을 공급받는 것은 내부적인 갱신과 재활성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일 수 있다.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은 건강한 선교적 DNA의 지표이며,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도는 건전한 선교적 역량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선교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합리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숙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선교적 정신의 본질이다. 우리는 내부적인 관심사와 외부적인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약한 단체들이 외부적인 파트너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내부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선교계에서는 관련된 단체나 개인들 간에 함께 일할 때 얻게 되는 상호적인 유익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단체는 함께 일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어떤 단체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파트너십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모두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너지를 내는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인 명목주의에 의해 단순히 추진되지 않고, 실용적인 지혜와 함께 추진될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선교 파트너십이 개별 단체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연합체 우산 아래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해왔다. 공적인 자리에서 거대 담론과 전략적 운동에 공통의 관심을 가졌지만, 보통 선교사들의 현장 사역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파트너십의 개념에는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전략화되어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유교적인 문화적 특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과 의견을 달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식적인 선언문을 쉽게 채택하지만, 그 선언문들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과 관련된 토론은 어느 정도 선교 지도자들의 교제를 깊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선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교제 모임을 가져왔는데, 그러한 모습이 새로운 세대의 선교단체 대표들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중요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선교단체 대표들이 개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실제 사역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함께 일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파터널리즘 (Paternalism)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오래된 문제이지만, 우리 시대에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뿌리는 파송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자만심이다.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신흥 선교사 파송 국가들에서 파송교회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방식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들과 그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자만심은 단일문화적인 배경, 급격한 교회 성장의 경험, 규모가 큰 교회, 지난 30여 년간의 인상적인 선교적 성장 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한 자만심은 소수집단 배경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자만심은 자문화중심주의 (ethnocentrism)의 본질이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방해하고 파터널리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파터널리즘은 자생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입장이 된다. 성령께서는 현지인들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지도자로 자라게 하시며, 그들이 선교사의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낮은 표준과 기대치를 적용하기 쉬운데,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현지인 제자들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종종 역사와 경험이 자문화중심주의 (ethnocentrism)와 파터널리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과 경험 많은 선교사들 중 다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직적 능력이나 자원이 풍부할 때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에 의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나 지도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가치, 잠재력, 권위를 인정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소수집단 배경을 가진 사역의 파트너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할 만큼 깨어 있고 기민하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지도자로 준비되어 왔을 수 있다.

함께 함 혹은 상호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고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이의 장벽을 넘어 문화와 조직의 경계를 초월해서 조화롭게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7. 총체적 접근과 전도우선 접근 사이의 균형

총체적 선교의 개념은 사람들의 물질적 및 영적 필요 모두를 고려한다.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선교 사역의 관심사이지만, 현실적인 인간의 필요를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아프리카 속담이 말하듯이,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총체적 및 전도우선의 접근법과 관련한 토론은 이론적이거나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상황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선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총체적 선교의 실제적 함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많은 실제 상황에서 총체적 접근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이 약화되고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우려가 있다. 총체적 선교를 무분별하게 채택할 때 선교단체가 자선단체화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 선교에 대한 오해는 선교회와 NGO 의 차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왔다. 선교회들이 NGO 들을 병행 기관으로 설립했다. 후원자들 눈에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NGO 를 후원하는 것이 선교를 후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NGO 들은 일반인들의 대중적 정서에 더 호소하여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현상도 벌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우선순위를 가진 선교회들과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비기독교적 종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종교적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많은 사회가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외부인과 단체는 기존의 종교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한 환영하고 있다. 현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하는 선교사들은 지역 공동체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지역 공동체들은 지역개발의 노력은 받아들이지만, 전도와 교육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공급자들은 이원론을 극복하려 하지만, 수용자들은 이원론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다. 선교사들이 건축물이나 다른 가시적인 물체 등 총체적 사역의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들은 오도된 것이다. 사역의 목적과 실제적인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계몽주의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여러 점에서 그들의 문화 이해가 문화적 물질주의 (cultural materialism)의 관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선교의 본성과 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서구적인 편향성이 아닌가?

총체적 및 전도우선의 접근법은 겉으로 보기에 이진법적인 (binary) 질문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질문이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초문화적인 (supracultural) 지혜일 것이다.

편향되기 쉬운 인간의 취약점으로 인해 극단적인 입장을 경계하면서 점검하고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교의 본성에 관해 집중하며 총체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주어진 시간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필요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폴

히버트가 말한 “해석학적 공동체 (a hermeneutical community)”를 적용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 (1997 [1994], 60).

해석학적 작업의 결과는 공동체, 상황,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논의는 비인격적이거나 직선논리적 (linear-logical)이지 않다. 성령님의 인도는 인간의 부족함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취하고 성숙한 입장을 가지도록 도울 것이다.

8. 연구개발

비즈니스 영역과는 달리 연구개발은 선교계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 LG 전자와 삼성전자에서는 전체 인력의 절반 가량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한다고 한다 (CEO 스코어 데일리 2015. 6. 12). 한국 선교사들 중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의 0.1%도 되지 않는다. 세계 선교계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연구개발은 가장 소홀히 여겨진 선교의 분야이다.

연구개발의 지원 없이는 선교의 혁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경험적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연관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의 발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들이 있다. 필자의 전반적인 관찰은 선교회들이 사역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활동주의 (Activism)의 문제는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활동주의는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많은 시행착오가 사역에 있어서 수요조사와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가운데 일어난다.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연구개발에 바탕을 둔 전략적인 고려가 있어야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다. 진정한 성숙성이란 열정과 이성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활동주의는 무지에 근거한 사역적인 맹목성이다. 그것은 많은 사역적인 결정들이 객관적인 검토 없이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교지에 만연한 문제이다.

활동주의는 책무성 (accountability)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책무를 지는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활동주의의 경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요조사, 계획, 준비하는데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할당할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주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게으른 것이 신실하지 못한 종들의 한 가지 문제라면, 활동주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선교사들과 그들 후원자들의 많은 활동들이 선교학적인 전문성에 확고히 바탕을 두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사역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활동주의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이 숙고하는 실천가가 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숙고하는 실천가의 개념은 실천과 숙고의 균형을 맞춘다. 선교사들은 실천가들이지만, 동시에 숙고에 바탕을 두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실천과 숙고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의 실천은 선교지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변화된 삶, 세계관, 운명이며, 그래서 선교지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역적인 결정들은 팀과 공동체의 집단적인 지혜를 극대화하면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선교 지도력은 선교학적 지식 베이스에 축적된 지혜와 통찰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인 학습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숙고하는 실천가 (reflective practitioner)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선교회들은 회원 선교사들이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선교학적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누는데 적합하기 위해서 선교회들은 연구개발 분야를 한 사역의 분야로 인정하고 그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경험적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선교회들은 회원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실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개별 선교사들은 선교지 상황, 전략,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때때로 선교사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한국 선교운동의 장래에 대해 나름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학적인 교육은 공식, 비형식, 비공식 교육의 측면들을 결합해야만 한다. 학위 과정들은 공식교육의 양식으로 운영되지만, 선교사 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측면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파송전 훈련 프로그램들은 학위 과정보다 더 비형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측면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들은 연장교육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개설될 필요가 있다. 사역과 단체에 따라 비학위 과정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구개발 사역을 증진해서 우리 세대에 필요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타문화권에서의 사역의 조건들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는 다른 접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교지에 숙고하는 실천가들을 필요로 한다.

결론

우리 시대에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도전과 이슈들이 있다. 선교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 선교 역사가 스티븐 니일 (Stephen Neill)이 일찍이 말한 대로 선교는 인간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일 (Neill)의 선교 역사가 증거하듯이 선교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자들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비전에 낙관주의 (optimism)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낙관주의를 결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깊이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작은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의 형상대로 빛으사 사역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참고 문헌

-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4 차 산업혁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김종명. 2014. 태국에 상황화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및 기초적 철학 계발에 관한 연구. A D. Miss dissertation. Malaysi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문상철. 2017. 4 차 산업혁명과 선교 혁신.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 브리놀프슨, 에릭, 앤드루 맥아피. 2016. 제 2 의 기계 시대의 노동: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4 차 산업혁명의 충격. 포린 어페어스 편집. 김진희 외 옮김. 서울: 흐름출판사.
- 히버트, 폴. 1997 [1994].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 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 조선일보. 2016 년 12 월 20 일 손진석 기자 보도. '신자 수 개신교 1 위 ... "종교 없다" 56%'.
- CEO 스코어 데일리. 2015. 6. 12.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4019>
- Guder, Darrell L. ed. 1998.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 Pew Research Center. 2015.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g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